

생명의 기도, 깨어나라

작성일 : 2012. 10. 24. 새벽 3:30

작성자 : 신츠(26, 스타)

(교회서 기도하며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승리하여 너무 감사했고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깨닫고 알게 간구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많은 지도자들이 줄기 시작하자 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목사가 계속 모두에게 정신 차리고 소리 내서 기도하라 소리쳤습니다. 그때 마음에 음성이 들렸는데 제게 뒤돌아서 회원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뒤돌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모두 졸고 있었는데 이때 뇌에 한 화면이 스쳤습니다. 바로 사탄이 모두가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게 그들의 목을 꼭 잡고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살하는 자가 바로 죽진 않는다.

투신 자살자가 바로 숨이 끊어져 죽진 않는다.

그런데 상대방 목을 잡고 숨을 못 쉬게 하면

그 생명은 곧 죽는다.

호흡기관이 핵심이다.

기도가 곧 호흡이다.

사탄이 너희의 기도(氣道)를 잡고

숨 쉬지 못하도록 하는데

곧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계속 들으려는 흥미를 잃게 되어

가 버리거나 자게 된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곧 그러하다.

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적당한 소리로 하면서

왜 나 성자와 얘기하는 데는 그리도 조용하냐.

마음의 눈을 떠서 내 음성을 들어라.

잠자는 자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다.

내 음성을 듣고자 계속 간구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그리하지 않느냐.

내가 이미 왔다.

너희와 얘기하고 싶구나.

그런데 너희가 사탄과 함께 있으니

난 너희에게 다가갈 수 없다.

너희가 기도로 사탄을 무찔러야만
내 비로소 너희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제는 진정 마지막이다.

‘생명의 기도’

왜 생명의 기도라 하느냐.

사람에게 생명이
가장 귀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육계에서 볼 때
생명이 일단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명을 일단 뺏기면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생명을 부활시킬 수 없지 않느냐.
고로 생명의 기도는
자신을 살도록 하는 기도이며
아주 귀한 기도다.
다시는 잠들지 마라.
올해가 다 끝나간다.
내년은 부활의 해다.
오늘은 내일을 예비하고
올해는 내년을 예비하는 것이다.

내년을 위해
올해 완전하고 철저하게 예비하라.
그 아무도 너를 위해 해 줄 수 없다.
오직 자신이 자신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지금이 그런 때이다.

올해가 끝나기까지
선생이 너희 모두 위해
십자가를 지어 준다 하지만
어찌 선생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선생 애인이라면
너도 자신의 책임분담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걸 선생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선생과 함께 분담하라.

네가 영적인 상황을 보았다.
기도에 깨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내 어찌 말해야 네가 알겠느냐.
내 사랑아.
깨어나라.

사탄이 너희 모두에게 다가가는 걸 보면
나는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나는 뒤돌아 떠난다.
너와 헤어지기 싫다.
그런데 사탄과 가까이하는
너와 함께할 수 없구나.
깨달아라.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보고 있다.
안녕.